논어 10편 향당 2장 · 원문·풀이

朝與下大夫言，侃侃如也；與上大夫言，闇闇如也。君在，踧踖如也，與與如也。

독음 · 조여하대부언 간간여야 여상대부언 은은여야 군재 축적여야 여여여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조정에서 아랫대부에게는 편안하고 솔직하게, 윗대부에게는 온화하고 바르게 말했으며, 임금 앞에서는 공손하면서 침착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朝 아침 조 조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下 아래 하 하 / 大 클 대 대

夫 지아비 부 부 / 言 말씀 언 언 / 侃 강직할 간 간 / 如 같을 여 여

也 어조사 야 / 上 윗 상 / 闇 화평할 은 은 / 君 임금 군

在 있을 재 재 / 踧 조심할 축 / 踖 조심할 적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